

AI한테 '만들어줘'만 하다 깨달은 것: 팀원처럼 나눠 맡기기

기획서·보고서·회의록·인수인계 같은 문서 업무를 AI 역할 분담과 운영 규칙으로 체계화한 실제 사례

분야: ④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AI를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역할별 팀원처럼 운영했습니다.

문제 상황

코드는 됐는데, 나머지가 안 끝났다

프로젝트 준비는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획서, README, 발표자료, 검증 기록처럼 보고서·회의록·인수인계와 닮은 문서 업무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AI에게 '만들어줘'라고만 요청했지만, 결과가 채팅과 파일에 흩어지고 다음 작업을 매번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Before / After 증거

Before / After 구조 증거

채팅에 흩어진 작업을 제출 패키지 폴더 구조로 정리

Before

AI 답변, 아이디어, 검증 결과가 채팅-메모-파일로 흩어져 다음 작업 때 다시 설명해야 했다.

After

공모전 준비/
 drafts/ 신청서-PDF-카드뉴스-숏폼 원고
 docs/ Opus/Sonnet 리뷰, 작업 목록, 인수인계
 assets/ 카드뉴스 이미지
 final/ 제출용 PDF
 evidence/ 제출용 증거 컷

변화

신청서 본문, 카드뉴스, 숏폼, 리뷰 결과, 작업 기록을 분리해 다음 AI나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용 증거 컷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거 버전

AI 역할 분담 한 명에게 다 시키지 않았다

판단 담당은 Opus, 문서 담당은 Sonnet, 작업 담당은 Codex, 조사 담당은 Perplexity가 맡았습니다. 저는 최종 판단과 개인정보 점검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AI를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준을 나누어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Claude 질문 + 답변

Claude Sonnet 사용 증거: 문장/UX 리뷰

공모전 원고를 일반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리뷰 결과를 받음

질문

```

Claude Sonnet에게 보낸 문장/UX 리빙 증거
AI 공모전 원고 다듬기

나는 공모전 제출 원고, 카드뉴스, 숏폼 대본을 다듬는 문장/UX 리뷰이다.
나는 "전국민 AI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 1"에 참가하려고 한다.
목표는 최우수작 1등이다.
전략 리뷰는 이미 Claude Opus에게 받았다.
Opus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분야는 ①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유지
- 현재 주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경험처럼 보이도록 문장을 구체화해야 함
- PDF보다 게시판 본문, 카드뉴스, 숏폼의 첫인상이 중요함
- "AI를 많이 썼다"가 아니라 "AI를 운영했다"로 보여야 함
- 너무 기술적인 표현보다 일반 심사위원이 바로 이해하는 표현이 필요함
- 측정하지 않은 성과 수치, 사용하지 않은 AI 도구, 개인정보(credential 노출)
먼저 아래 프로젝트 폴더를 기준으로 현재 자료를 확인해라.

bash
cd ~/Users/jyyoung/Desktop/공모전 준비
pwd
ls
find . -maxdepth 3 -type f | sort

먼저 읽을 파일:
Text
./docs/OPUS_REVIEW.md
./docs/DECISIONS.md
./docs/TASKS.md
./docs/NOTES/06.md
./drafts/01_신청서_본문.md
./drafts/02_카드뉴스_4등_문구.md
./drafts/04_숏폼_대본.md
./drafts/07_제출문구_Perplexity_포함비프.md

```

답변/결과

너는 공모전 제출 원고, 카드뉴스, 숏폼 대본을 다듬는 문장/UX 리뷰이다. 나는 "전국민 AI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 1"에 참가하려고 한다. 목표는 최우수작 1등이다. 전략 리뷰는 이미 Claude Opus에게 받았다. Opus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분야는 ①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유지
- 현재 주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경험처럼 보이도록 문장을 구체화해야 함
- PDF보다 게시판 본문, 카드뉴스, 숏폼의 첫인상이 중요함
- "AI를 많이 썼다"가 아니라 "AI를 운영했다"로 보여야 함

명령 5개 실행함, 로딩된 도구, 도구 2개 사용함 >
모든 파일 확인 완료. 리뷰 시작합니다.

파일 생성됨, 도구 사용함 >
리뷰 완료. 전체 결과입니다.

1. 전체 톤 진단
 양호: 과장 수치 없음, 문제→해결→효과 구조 명확, 도구 진정성-안전 점검 언급 좋음.

PO — 즉시 수정:

- credential, P0/P1/P2, NEXT_CHAT_HANDOFF, MVP → 일반 심사위원 이해 불가. 전부 한글로 풀어써야 함.

Codex 활용 결과를 파일과 기록으로 남겼다

Codex는 단순 답변보다 실제 파일 생성, 캡처 정리, 작업 기록 갱신에 강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남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PDF, 카드뉴스, 슷폼 자료로 이어질 수 있게 산출물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채팅 답변을 문서 업무의 산출물로 바꾸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Codex 질문 + 결과

Codex 사용 증거: 공모전 증거 자료 재정리

공모전과 관련된 질문/답변 증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Codex가 실제 캡처 묶음을 다시 구성함

질문

스크린샷 찍은것을 다 공모전 관련자료 해주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물어봤는지랑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스크린샷 있어야 하지 않을까? 피들해서나, 코드스, 올로드 다 다라가지로 그렇게 해야 할 듯

3m 38s 동안 작업 중입니다

알아, 지금 07:09는 "어떻게 물어봤는지" 중요하고, 08은 최신 결과 중심이라 상세히 설명해서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한 장 안에 더 설명해야 해. 내가 Claude/Perplexity/Codex 각각을 질문 -> 답변/결과 가 같이 보이는 공모전 증거 텍스트 다시 정리해 줄게.

☞ 알았어 크게 상관없

먼저 현재 창 ID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 그 다음 기존 화면 캡처와 새 캡처를 해서, "공모전 질문 -> AI 답변(산출물)" 흐름이 보이는 최종 증거 이미지를 만들게.

여기서는 새로 "좋은 설명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화면 캡처를 재배치해서 증거성이 강하게 만들 거야. 각 질문: 질문/결과 과 답변/결과 가 한 이미지 안에 같이 보이게 구성할게.

☞ find "\$HOME/Desktop/공모전 증거/evidence" -maxdepth 2 -type f | -name "*.png" -o -name "*.jpg" | xargs ..

이미 확보된 화면/크롬이 꽤 있어서, 거기서 제일 증거력이 강한 것만 골라 합칠 수 있어. Claude는 질문: 프롬프트 + Sonnet: 재질: 결과, Perplexity는 공식정보: 확인: 질문 -> 공식: 확인: 결과, Codex는 질문: 요청: 결과: 생성/저장: 결과 로 묶을게.

☞ "Users\jyoung\cache\codex-runtime\codex-primary-runtime\dependencies\python\bin\python3" -v*

공모전용으로 3장을 따로 묶었어.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 글자가 너무 작거나 공모전 맥락이 약하면 바로 한 번 더 손볼게.



Claude용은 편집이, 질문이: 공문, 최우선: 3통, 문장/시: ↓, Ctrl, 위를 띄워서 보이고, 답변 쪽에 실제 리브 결과가 이어져서 공모전 관련성이 살아있어. Perplexity랑 Codex도 확인할게.

후속 변경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결과

☞ "Users\jyoung\cache\codex-runtime\codex-primary-runtime\dependencies\python\bin\python3" -v*
공모전용으로 3장을 따로 묶었어.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 글자가 너무 작거나 공모전 맥락이 약하면 바로 한 번 더 손볼게.



Claude용은 편집이, 질문이: 공문, 최우선: 3통, 문장/시: ↓, Ctrl, 위를 띄워서 보이고, 답변 쪽에 실제 리브 결과가 이어져서 공모전 관련성이 살아있어. Perplexity랑 Codex도 확인할게.

후속 변경 사항을 알려주세요

나만의 협업 규칙 질문이 아니라 운영 기준을 줬다

1. 프로젝트 루트와 먼저 읽을 파일 지정
2. 수정할 파일과 수정 금지 파일 구분
3. 긴급·중요·보류 순으로 우선순위 지정
4. 실행한 검증과 못 한 검증 구분
5. 보안·개인정보·인증 정보 노출 금지
6. 다음 시가 이어받을 인수인계 문서 작성

안전 점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증거

제출 전 개인정보·저작권·실사용 여부 확인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계정 정보, 타인 개인정보가 캡처에 보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민감 정보

API 키, 인증 토큰, 비밀번호, DB 정보, 서버 운영 정보, .env 내용은 제출물에 넣지 않는다.

정직한 AI 활용

실제로 사용한 AI 도구만 적고, 측정하지 않은 성과 수치와 출처 없는 이미지·음악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출용 증거 컷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거 버전

변화

다음 사람이 바로 이어받는 흐름이 생겼다

Before: 작업이 채팅과 메모에 흩어지고, 매번 '어디까지 했더라'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After: 작업 목록, 작업 기록, 인수인계 문서가 남아 새 채팅이나 다른 AI도 바로 이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보고서 초안, 회의 요약, 인수인계 같은 문서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실제 개발/포트폴리오 산출물 증거

공개 가능한 포트폴리오 README 내용을 민감 정보 없이 요약

프로젝트
 Juyoung Portfolio - 프로젝트, 이력, 기술 스택, 기록을 정리하는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AI 활용 전 문제
 프로젝트 설명, 대표 프로젝트 정리, QA 상태, 문서 업데이트가 흩어져 포트폴리오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다.

AI 활용 후
 README, 작업 목록, 인수인계 문서로 현재 상태와 남은 작업을 분리해 다음 작업자가 읽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정리했다.

제출용 증거 컷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거 버전

마무리

AI는 나누면 팀원이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AI가 대신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종 판단을 맡고, AI에게 역할·범위·검증·인수인계 기준을 나누어 주었더니 흘러진 작업이 이어지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AI에게 다 맡기지 말고, 역할을 나눠보세요.

보고서·회의록·인수인계 업무에서도 AI는 나누면 팀원이 됩니다.